

『Clark-Hoffmann의 經濟發展類型』의 後進國에 對한 適用의 問題

李 賢 宰

目 次

- 1. 問題의 提起
——成長率理論과 形態學의 研究
- 2. 第 1 運動——第 1 次產業으로부터 第 2 次
產業으로의 移行過程——을 爲한 若干의 條
件
 - A. 第 1 運動의 歷史의 法則性과 當爲性
 - B. 第 1 運動에 있어서의 資本調達의 問題
 - C. 第 1 運動에 있어서의 勞動力移動의 條
件과 限界
- 3. 第 2 次產業內部에 있어서의 構造의 高
度化
- 4. 結語
——Economics에서 Political Economy
로의 復歸

1. 問題의 提起

——成長率理論과 形態學의 研究

第二次世界大戰以後 經濟成長의 問題는 經濟政策 및 經濟學의 課題로서 人口에 널리 膾炙하여 學問領域에 있어서의 새로운 位置와 政策目標로서의 새로운 認識을 促求하게 되었다. 勿論 經濟成長에 關한 理論的 認識 그 自體는 古典學派에 까지 溯及하여 그 濫觴을 求할 수가 있는 것이다. (註1) 卽 社會主義學派, 슈페터, 케인즈學派에 걸쳐서 時代와 學派에 따라 成長問題가 主流와 細流로서의 位置의 顛倒과 成長要因에 對한 把握의 差異 그리고 關心의 烈度の 強弱은 있었을지언정 各學派를 一貫해서 提示되고 있는 것이다. 最近에 이르러 成長理論이 새로운 開花를 보게 된 것

(註 1) W.W. Rostow,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1952, pp.4~5. 여기서 Rostow 教授는 『國富論』에 對하여, 이를 經發展에 關聯하는 社會的 政治的 諸力의 影響을 받고 있는 長期的 諸要因의 變動決定諸力에 關한 動學的分析이라고 看做한다는 것은 『國富論』에 對하여 歪曲된 解釋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指摘하고 있다.

은 1930年代에 있어서의 世界的인 慢性的不況의 衝擊, 二次大戰後의 世界經濟體制의 分裂, 後進國의 經濟發展과 그의 世界經濟에의 登場, 社會主義經濟圈의 飛躍의 成長等의 事實에 遭遇하여 오랫동안 靜學的 短期的 分析方法에 立脚해 온 近代經濟學이 現實經濟에 對한 理論接近을 試圖함에 있어서 經濟思想上 가장 古朴한 問題意識을 다시 刺戟하여 經濟成長이라는 動學的인 問題와 方法의 導入이 不可避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經濟成長의 問題는 經濟學에 있어서의 問題意識으로 보면 그 始發點인 同時에 歸着點이라 할 것이다. 但只 最近에 있어서는 成長理論은 所得分析의 立場에서 統計技術의 發達과 數學的 物理學의 方法의 導入에 依해서 數量的으로 把握하고 定式化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새로운 發展이라 할 것이다. 成長率理論, 投入產出分析, 投資效率分析 등에서 볼 수 있는 計量經濟學的인 方法의 發展이 그 典型的인 例라 할 수 있다.

成長經濟學은 이와 같이 近代經濟學의 大脈을 形成하고 理論과 政策論으로 幅이 넓은 發展을 이룩하였으며 이것은 必然的으로 成長率理論과 形態學의 研究의 兩側面으로의 展開를 보게 되었다. Robinson 女史와 같은 境遇에 있어 Harrod 教授로부터 커다란 影響을 받고 있으면서도(註2), Harrod의 世界는, 連續的인 變動이 時間의 經過에 따라 進行한다는 意味에 있어서는 動態的이나 그것은 歷史가 없는 世界라는 見地에서 이에 對하여 批判的 立場에서 고 있는 것은 分明히 成長理論이 갖는 問題點 卽 經濟發展의 歷史的 經驗的分析의 缺如를 指摘하고 있는 것으로서 注目할 만한 것이다. 實際로 經濟成長過程은 長期準

(註 2) J. Robinson, The Rate of Interest and Other Essays, 1952, pp. 90~98.

停滯——高度成長——長期準停滯의 經路로 로지스틱 曲線 logistic curve을 그리는 것이나 成長率理論에 依해서는 이 過程에 있어서의 歷史的 變質 段階는 把握할 수 없는 것이다. 經濟成長過程에 對한 歷史的 把握의 가장 著名한 例로서는 獨逸 歷史學派의 發展段階說과 맑스의 辨證法的發展段階說이 周知되고 있는 바다. 그런데 近代成長經濟學의 擡頭以後의 代表的인 類型的發展段階把握의 例로서는, 消費財工業과 生産財工業間의 工業構造高度化의 傾向을 追求한 Hoffmann(註3), 産業構造의 發展法則을 抽出한 Colin Clark(註4), 그리고 長期間 有力하게 支配하였던 連續說에 對한 反逆으로서 登場한 Rostow(註5)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Colin Clark의 發展類型을 中心으로 Hoffmann의 類型을 補助的으로 導入하여 이에 對한 批判의 餘地의 有無에 關한 問題는 原則的으로 論外로 하고 一旦 該類型的發展段階를 그대로 後進國에 適用하여 後進國 經濟發展의 未來像을 展望하고 該類型把握에 따라서 後進國의 先進類型으로의 前進에 對한 可能性과 蓋然性을 考察하여 後進國工業化過程에 있어서 直面하고 있거나 豫期할 수 있는 問題點의 一面을 提示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經濟發展의 大經大法인 工業化의 問題만을 意識하면서 追求코자 하기 때문에 第1次産業自體의 開發에 關한 問題와 Colin Clark에 있어서의 二次産業으로부터 三次産業으로의 移行의 問題에 對해서는 本稿에서 一旦 割愛하기로 한다.

2. 第1運動(註6)——第1次産業으로부터 第2次産業으로의 移行過程——을 爲한 若干의 條件

A. 第1運動의 歷史的法則性和 當爲性

(註 3) W. Hoffmann, Studien und Typen der Industrialisierung, Ein Beitrag zur quantitativen Analyse historischer Wirtschaftsprozesse, 1931.

(註 4) Colin G. Clark,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1940.

(註 5) W.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1960.

國譯版, 李相球·姜命圭 共譯, 經濟成長의 諸段階, 1961.

(註 6) 便宜上 第1次産業으로부터 第2次産業으로의 移行過程을 第1運動, 第2次産業으로부터 第3次産業으로의 移行過程을 第2運動이라 稱하기로 한다.

Colin Clark는 經濟成長의 現象面을 産業構成의 高度化로서 把握하고 産業構成의 發展의 變遷을 各産業部門의 就業者數에 依해서 觀察하고자 하는 것이다. 卽 Clark에 있어서는 一國의 經濟發展이 進行됨에 따라 第1次産業에 從事하는 就業者의 比率는 減少하고 第3次産業에 從事하는 就業者의 比率는 增加하며 第2次産業에 從事하는 就業者의 比率는 極限에 까지 上昇하였다가 다시 下降하기 시작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Clark 自身이 提示하고 있는 統計的 根據에 依해서 그러한 法則의 妥當性을 確認할 수가 있거니와 또한 우리가 求得할 수 있는 最近의 資料에

第1表 産業構造의 國際比較(1953—1959年平均)

所得集團	第1次産業	第2次産業	第3次産業
第1集團			
카나다	8.6	38.2	53.2
英國	4.6	44.9	50.5
美國	4.7	38.4	56.9
벨지움	8.2	45.6	47.2
덴마크	22.0	34.1	43.9
뉴웨이	13.0	37.9	48.8
第2集團			
西獨	7.8	51.7	40.5
和蘭	111.5	39.4	49.1
第3集團			
오스트리아	14.5	50.4	35.1
칠리	14.7	27.8	57.5
이태리	12.2	29.3	58.6
第4集團	23.1	39.8	36.5
日本	19.8	32.5	47.7
第5集團			
比律賓	39.6	18.9	41.5
씨이론	51.3	13.7	35.0
泰國	42.2	17.7	40.5
第6集團			
버마	42.2	16.0	41.8
臺灣	33.1	24.6	42.3
印度	48.1	16.6	35.3
켄야	42.7	14.4	42.8
파키스탄	56.2	11.0	32.8

註: 第1集團 國民 1人當所得 900弗 以上
 第2集團 // 600弗~900弗
 第3集團 // 300弗~600弗
 第4集團 // 200弗~300弗
 第5集團 // 100弗~200弗
 第6集團 // 100弗 未滿

資料: 韓國銀行調查月報 第15卷 第10號, 韓國의 産業

依해서도 그 法則性을 大體로 觀察할 수가 있다. 卽 第1表는 產業別總生產의 國際的比較이나 就業構造는 아니나, 嚴密性을 犧牲해서 보면 就業構造도 國民總生產의 比較에 準해서 類推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 表에서 보면 所得水準이 가장 높은 第1集團諸國 卽 캐나다, 英國, 美國, 日 지, 덴마크, 노웨이는 第3次産業-第2次産業-第1次産業型이고, 第2集團 第3集團 第4集團의 中所得諸國은 大體로 第2次産業-第3次産業-第1次産業型(특히 西獨, 오스트리아, 이

태리)이며 第5集團 및 第5集團의 低所得諸國은 大體로 第1次産業-第3次産業-第2次産業型(특히 씨이론, 泰國, 버마, 印度, 파키스탄)을 이루고 있어 Clark의 法則性을 大體로 그대로 示顯하고 있다. 또한 第2表에 있어서 韓國의 境遇에도 年度가 進行됨에 따라 產業別成長率의 趨勢와 構成比率의 推移가 亦是 Clark의 傾向을 表示하고 있다. 그러나 第1表에 있어서의 第5集團 및 第6集團, 第2表의 韓國의 境遇에 있어서는 第1次産業으로부터 第2次産業으로의 移行

第2表 產業別國民總生產의 推移(1955年價格)(單位: 億원)

產業別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第1次産業	301.9	283.9	267.7	390.3	402.0	378.4	411.5	442.1	448.4	452.3	494.1
成長率	-10.3	-0.6	29.5	6.1	3.0	-5.9	8.7	7.4	1.4	0.9	19.1
構成比	37.2	41.1	42.3	42.7	42.3	39.3	39.7	39.9	38.5	38.0	40.2
第2次産業	57.8	68.7	110.1	127.7	144.4	162.0	189.5	206.4	233.8	242.4	253.1
成長率	016.1	43.7	60.3	16.0	13.1	12.1	17.0	8.9	13.3	3.7	4.4
構成比	7.5	9.9	12.7	14.0	15.2	17.0	18.3	18.7	20.0	20.5	20.6
第3次産業	290.3	838.5	390.7	395.5	403.8	412.4	434.2	458.5	482.6	494.2	483.2
成長率	8.4	16.6	15.4	7.2	2.2	2.1	5.3	5.6	5.3	2.4	-2.2
構成比	45.3	49.0	45.0	48.3	42.5	43.3	42.0	41.4	41.5	41.5	39.2
國民總生產	640.0	691.1	868.5	913.5	590.2	592.8	1,035.3	1,107.0	1,164.8	1,188.9	1,230.4
成長率	-6.1	8.1	25.7	5.2	4.0	0.3	8.7	7.0	5.2	2.1	3.5
構成比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韓國銀行, 經濟白書(1963)

을 成就하지 못한채 飛躍의 으로 第3次産業의 比重이 相對的으로 擴大되고 있는 事實은 注目할 만한 것이다. 이것은 後進國에 屬하는 第5集團과 第6集團諸國에 있어서는 一面에 있어서는 零細資本이 聚集되는 商業이 많고 他面에 있어서는 第2次産業은 原價管理가 嚴格하기 때문에 限界生産力이 零이 되는 勞動者의 存在를 許容치 않으나 第3次産業은 그 性格上 潛在失業 乃至 不完全就業의 溫床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經濟發展에 있어서의 基本的인 方向으로서 第1次産業으로부터 第2次産業으로의 移行에 對한 歷史的인 法則性에 對해서는 實證的인 資料에 依해서 吟味해 보았거니와 그 當爲性에 對해서도 이 普遍的으로 疑問提起의 餘地가 없는 問題로 認識되고 있다. 卽 原始産業으로부터 製造工業으로 移行하므로써 비로소 經濟發展이 始發된다고 보는 것은 一般的으로 自明한 原理라고 認

識되고 있다. 往往 引用되듯이 經濟發展의 基本的인 關係를 $\frac{dY}{Y} = \left(\frac{FL}{Y}\right) \frac{dL}{L} + \left(\frac{FK}{Y}\right) \frac{dK}{K}$ 로 表示하면(註7), 經濟成長이 勞動力中心의 第1

(註7) 生産要素中에서 供給이 一定한 土地資源을 考慮치 않고 主要한 生産力인 勞動力과 資本을 基本要素로 看做하여 生産要素의 投入과 그것으로부터 産出되는 生産物과의 函數關係를 表示하면 産出 卽 所得을 Y, 勞働量을 L, 資本量을 K로 하여 生産要素가 相互 代替關係에 있는 것으로 假定하여

$$Y = F(L, K)$$

이로부터

$$dY = FLdL + Fkdk$$

$FL\left(=\frac{dY}{dL}\right)$ 은 勞働의 限界生産力이고 $Fk\left(=\frac{dY}{dK}\right)$ 은 資本의 限界生産力이다. 여기서 産出 卽 所得의 成長率은 兩邊을 Y로 나누어

$$\frac{dY}{Y} = \left(\frac{FL}{Y}\right) \frac{dL}{L} + \left(\frac{FK}{Y}\right) \frac{dK}{K}$$

로 된다.

次産業으로부터 資本中心의 第2次産業으로 移行함에 따라 卽 資本이 生産力의 中心의 位置에 登場하므로써 이 式 右邊에 있어서는 第1項보다도 第2項으로 主力이 移行하여 여기서 비로소 經濟發展은 始發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勿論 技術의 革新이라든지 새로운 發明이 資本使用的 卽 勞動節約的인 것이 아니라 資本節約的인 卽 勞動使用的인 境遇에 있어서는 이러한 定式化에 對해서는 一聯의 疑問도 提起될 수 있고 또한 後進國에 있어서와 같이 資本不足과 過剩人口包有를 特徵으로 하고 있는 國家에 있어서는 雇傭擴大政策上 資本節約的이고 勞動使用的인 生産方法의 必要性을 考慮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元來 技術 또는 機械設備란 自動的인 性格을 갖는 것이며 따라서 資本은 本質的으로 勞動節約的 卽 資本使用的인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勞動使用的인 技術向上에 依해서는 生産性의 上昇에 隨伴하여 資本의 增加를 必要로 하게되는 累積過程은 造成될 수 없는 것이다. 勞動使用的인 技術로부터 資本使用的인 技術이 採擇되는 段階에 到達하므로써 비로소 經濟는 停滯狀態를 離脫하여 累積的 發展過程 卽 Rostow에 있어서의 飛躍段階 take-off(註8)로 進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B. 第1運動에 있어서의 資本調達의 問題

第1次産業으로부터 第2次産業으로 移行하는 第1運動의 歷史的法則性과 當爲性에 對한 基本의 原理는 上述한 바와 같거나 다음은 後進國에 있어서의 第1運動을 爲한 意識的인 努力過程에 있어서의 實踐上의 問題에 關心을 傾注해 보기로 한다. 이 問題에 對하여 于先 想起되는 것은 Kindleberger의 「資源轉用的 彈力性의 差異」의 問題이다. 卽 一般的으로 農業은 그의 着手는 容易하나 拋棄는 困難하고 이에 反하여 工業은 그의 着手는 困難하나 拋棄는 容易한 것이다. 이와 같은 事實은 工業은 農業에 比하여 보다 많은 資本, 從業員의 보다 高度의 技術과 訓練 그리고 보다 完全한 販賣市場을 必要로 하는데 基因하고 있다. 이것이 다름아닌 第1次運動展開過程에 있어서 後進國이 直面하는 致命的 難點인 것

이다. 더구나 여기에 列擧한 3要因中에서도 보다 決定的인 것은 資本의 問題이다. 經濟的後進性의 同意語처럼 資本不足이라는 問題가 喧傳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理由에서 인 것이다. 따라서 大體로 第1表의 第5集團 및 第6集團에 屬하는 後進國에 있어서는 第1運動의 展開過程에서 資本不足의 克服에 必死的인 努力을 集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後進國에 있어서의 自發的 民間資本形成은 貧困의 惡循環으로 因하여 이를 期待할 수가 없기 때문에 國家라는 外的權力이 經濟發展의 이니시아티브를 取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通例이다. 이 境遇에 있어서의 資金源泉인 貯蓄은 國家權力에 依해서 直接的으로 強制되거나 或은 인플레이션의 메카니즘속에서 「強制貯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後進國에 있어서의 資本供給의 源泉으로서 國家가 登場하는 關係에 對해서 Gerschenkron은 다음과같이 整理하여 提示하므로써 獨特한 說明을 加하고 있다.(註9)

段階	先進國	中進國	後進國
I	企業	銀行	國家
II		企業	銀行
III			企業

여기서는 第I段階에 있어서 先進國은 企業이, 中進國은 銀行이, 後進國은 國家가 登場함을 表示하고 있다. 이와같이 後進國에 있어서는 不可不資本調達の 主體로서 國家가 登場하는 것이 共通現象으로 되어 있는데, 國際聯合報告는 그 方法으로서 萬若에 自發的貯蓄이 不足하면 資金은 租稅의 形態로 強制獲得되어야 하며, 萬一 이 方法이 不可能하면 外國資本으로써 充當하여야 하며, 다음에 이 모든것이 不充分하고 支出이 緊急한 境遇이면 最後的으로 인플레이션의 手段이 利用되어야 한다고 指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指摘된 3方法中에서 第1의 方法인 租稅는 低所得水準을 特徵으로 하는 後進國에 있어서는 이미 正常的 擔稅能力을 超過하는 水準에서 強行되고 있다. 그리고 第2의 方法인 外國資本依存은 二次大戰後 後進諸國이 繼續해서 追求해 온 方法으로서 一面 經濟的 自立을 高唱하면서도 他面

(註 8) W.W. Rostow, op. cit., pp. 36~58.
前掲國譯版, pp. 71~108.

(註 9) A.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1962, pp. 5~30, 355.

非農擴大를 要請하는, 自立과 依存의 二律背反의 形式論理의 矛盾을 犯하는 것이 現實論理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이러한 形式論理과 現實論理의 乖離의 解消 卽 兩者의 一致에서 볼 수 있는 眞正한 自立經濟를 成就하지 못한채, 外國資本依存은 政治的인 問題와 援助 提供國自體의 國際收支惡化로 因하여 漸次 그 展望이 樂觀할 수는 없는 處地에 있다. 이와 같이 第1, 第2의 方法이 限界에 接近하고 있는 것이 되면 第3의 方法 卽 인플레이션의 方法이 最終의 支援形態로서 登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 後進國에 있어서의 慢性的인플레이션의 威脅을 豫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인플레이션과 經濟發展과의 關係가 하나의 問題로서 提起되게 된다. 産業構造近代化의 第1運動에 있어서의 資本調達の 重要性自體에 關한 認識은 上述한 바와 같이 이 課題에 對한 集約的研究은 다른 研究者의 成果에 期待해 보기로 하고(註10) 다음에는 第1運動進行過程에 있어서의 勞動力移動의 問題를 中心으로 追求해 보기로 한다.

C. 第1運動에 있어서의 勞動力移動의 條件과 限界

農業部門의 勞動力移動에 對하여는 潛在失業을 潛在的貯蓄의 可能的 源泉으로 認定하고 資本不足國家에 있어서 過剩勞動力을 動員하여 實物資本으로 轉用한다는 問題는 Nurkse(註11)와 Dobb(註12)에 依해서 이루어진 有名한 提案이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後進國國民이 人口壓力이라는 自然法則으로부터 脫却할 수 있는 社會法則을 自身들에 依해서 發見할 수 있다는 可能性을 示唆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國家干涉에 依해서 農業部門의 潛在失業을 除去하여 이 部門에서 貯蓄源泉을 造出하고 非農業部門을 建設하여야 한다고 主張하며 이러한 過程이 效果의으로 實現되기 爲해서는 農業部門과

非農業部門間的 交易條件이 前者에 對해서 不利하게 維持되어야 한다는 Sen의 說明(註13)은 注目할만한 것이다. 그러나 Nurkse의 農業人口移動論의 基本構想自體에 對해서는 共感을 주고 있는 것이나, Nurkse의 方法論에 있어서는 實踐的 價値에 許多한 疑問이 있다는 點을 否定할 수 없다. 卽 Nurkse의 方法에 實踐的 價値를 附與하기 爲해서는 于先 다음의 主要한 두가지 基本的 條件이 充足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첫째는 非農業部門으로 移動된 勞働者의 生計維持를 爲한 物資調達이 可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農業部門에서는 潛在失業의 除去에 依해서 勞働生産량이 向上될 것이나 消費水準이 不變이라면 여기서 造出된 剩餘農産物에 依해서 非農業部門으로 移動된 勞働者를 扶養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可能性을 現實的으로 保證하기에는 여러가지 困難한 問題가 介在한다. 또한 非農業部門으로 移動된 勞働者側에서도 그들이 移動以前과 同一한 消費水準으로써 滿足하고 그들의 消費內容에 있어 食糧이 主要部分을 形成하고 있는 程度로 單純한 境遇이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可能性에 對해서도 亦是 現實的으로 問題가 있다 할 것이다. 다음 潛在失業動員의 可能性을 附與하는 둘째 條件으로서 는 勞働手段이 潛在失業狀態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移動以前에 移動한 勞働者들이 使用했던 勞働手段이 潛在失業狀態에 있어야만 農業部門의 生産量의 減少없이 勞働手段의 同時的 移動은 可能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있어 農業部門으로부터 潛在失業을 除去하여 非農業部門으로 移動하는데 있어서의 問題點은 雇傭條件 卽 勞働報酬에 關한 것이다. 이 問題의 始發的契機는 農業部門에 潛在失業이 存在하여 限界生産力은 零인비도 不拘하고 報酬는 實現되고 있다는 事實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에 資本主義的 價値計算의 原理와 非資本主義的 共同社會的 價値計算의 原理와의 基本的 差異가 있다. 獨立的個人으로서가 아니라 家族勞動을 中心으로 하는 農業部門에서는 勞動力 單位當報酬는 homo economicus의 合理主義的 價値計算에 立脚하여 勞働의 限界生産力에 依해서 決定되는 것

(註10) 朴喜範, 「後進國에 있어서의 內資調達과 그 産業別 配分(其一)」, 經商論集, 第I卷 第1號, 1962. 12, pp. 9~26.

이 論文에 있어서는 後進國의 資本調達問題에 對한 理論的, 政策의 研究가 試圖되고 있으며 同教授의 이 課題에 對한 續篇이 繼續 發表될 것으로 期待되고 있다.

(註11) R. Nurks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1953, pp. 33~46.

(註12) Maurice Dobb, Some Aspects of Economic Development, 1955, pp. 39~41.

(註13) A.K. Sen, Unemployment, Relative Price and the Saving Potential, *The Indian Economic Journal*, Vol. III, No. 4, August 1957, pp. 56 ff.

이 아니라 勞動의 平均生産力에 依해서 決定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卽 이 部門에서는 비록 勞動의 限界生産力은 零일지라도 그 限界生産力 亦是 平均的報酬를 取得하게 되는 것이며 農業部門 나아가서는 後進國이 強大한 人口包容力을 가지는 經濟의 理由는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後進國은 非資本主義的部門과 資本主義的部門이 並存하는 二重經濟이고 前者는 後者에 比해서 限界生産力이 低劣하여 潛在失業이 存在하므로 萬若 勞動을 非資本主義的部門으로부터 資本主義的部門으로 移動시키면 潛在失業은 除去되고 勞動의 效率의 利用이 可能하다는 論理가 설 수 있게 된다. 그러나 二重經濟社會에서는 非資本主義的部門에 就業하고 있는 勞動力은 그 限界生産力이 비록 資本主義的部門에 比하여 低劣할지라도 非資本主義的部門의 勞動의 平均生産力에 依해서 報酬가 實現되기 때문에 完全히 資本主義化를 成就한 社會처럼 容易하게 勞動力의 移動이 發生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資本主義的部門의 勞動의 限界生産力 卽 勞動의 報酬가 非資本主義的部門의 勞動의 平均生産力보다 高水準에 있지 않으면 資本主義的部門으로의 勞動力移動은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設或 一旦 移動이 이룩된 境遇라 할지라도 持續的으로 上述한 條件이 維持되지 않는 限 後進國特有의 望郷의 性情까지도 加勢하여 歸農現象이 發生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맑스가 反資本主義的 癰腫이라고 表現하고 있다 싶어 資本主義的部門의 擴大發展을 沮止하는 커다란 要因의 하나인 것이며 第1運動의 進行過程에 있어서의 一大 難點이기도한 것이다.

3. 第2次産業內部에 있어서의 構造의 高度化

第1運動에 成功하여 工業化運動이 始發하면 該過程이 進行됨에 따라 漸次 工業構造의 高度化過程이 展開되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傾向 亦是 다음 提示되는 資料에 依해서 觀察할 수 있는 바와 같이 工業發展의 歷史的인 法則性인 同時에, 經濟成長이란 單純히 流量 flow의 增加過程이 아니라 貯量 stock 卽 富의 增殖에 依해서 累積過程이 進行됨으로써 그 意義가 있는 단

큼 그 當爲性에 對해서도 充分히 理解할 수가 있다. 工業構造高度化에 對한 發展類型區分은 著名한 Hoffmann의 把握方法이 가장 典型的인 境遇라 할 수 있을 것이다.(註14) Colin Clark는 廣範한 實證的 資料驅使에 依해서 全産業構造의 高度化傾向을 類型化시킨데 對하여 Hoffmann의 境遇는 工業構造變化에만 局限하여 類型把握을 試圖하는데 集約的인 努力을 傾注했다는 點이 相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兩者에 있어서의 基本的인 着想과 把握方法에 있어서는 類似하며 結局은 同一한 結果에 到達하고 있는 것이며 本論의 標題에서 Clark-Hoffmann의 發展類型이라 하여 兩者를 統合 表示한 意圖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Hoffmann의 工業發展類型의 大要를 把握해 본다. Hoffmann은 工業의 質的構造를 家計需要財生産部門인 消費財工業과 企業需要財生産部門인 生産財工業으로 二分하고, 兩部門間의 構造變化를 表示하는 尺度로서는 各部門의 純生産額 Produktionsertrag을 採擇하므로써 消費財工業의 純生産額과 生産財工業의 純生産額의 比에 依해서 構造變化過程에 對한 段階區分을 試圖하고 있다. 그는 經濟發展의 基準을 資本에 對한 要求의 大小에 두고 消費財工業 또는 輕工業은 比較的 手工業이나 工場制手工業時代의 特殊技能과 結付될 可能性이 많은데 比하여 生産財工業은 資本에 對한 要求가 強烈하다는 點이 指摘되고 있다. 이러한 點에 關聯하여 Bücher의 工業經營形態發展論은 Hoffmann의 發展類型을 理解하는데 甚 有助할 것이다.(註15) 上述한 事實로 부터 Hoffmann은 工業構造의 高度化 段階를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段 階	純生産額比率		特 徵
	消費財工業	生産財工業	
I (工業化初期段階)	5±1	1	消費財工業優越
II (工業化過程)	2± $\frac{1}{2}$	1	生産財工業相對的增大
III (高度工業化段階)	1± $\frac{1}{2}$	1	消費財工業과 生産財工業均衡到達

(註14) W. Hoffmann, op. cit.

(註15) 黃炳燾, 「工業生産形態에 關한 研究」, 經商論集, 第I卷 第1號, 1962. 12, pp. 1~8.

이러한 工業化의 發展法則은 最近의 Hoffmann의 祖述者나 發展形態에 關心을 갖는 研究者들에 依해서도, 消費財工業과 生産財工業間의 比率은 嚴密하게 適用되지 않으나 그의 發展傾向自體에 對해서는 大體로 그대로 確認되고 있다. Patel은 Hoffmann의 類型把握을 爲해서 第3表, 第4表와 같은 嶄新한 資料를 提示하고 있다.(註16) 兩表에서 보면 資本主義의 歷史가 長久한 國家일 수록 Hoffmann의 工業構造의 變質過程이 緩慢히 進行되고 該發展法則이 比較的 嚴密히 適用되고 있는데 反하여 近代의 發展의 始發이 늦었거나 또는 早速한 發展을 이룩한 先進資本主義國家와 社會主義國家는 消費財工業의 確立을 보지 못한채 急激히 生産財工業으로 轉向하고 있음을 發見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傾向이 多分히 後進國의 發展方向을 暗示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Hoffmann에 있어서는, 工業構造가 消費財工業의 發展을 前提로 해서 一聯의 均衡을 維持하면서 生産財工業이 占하는 比重이 增大해나감으로써 經濟가 發展하는 것으로 把握되고

第3表 工業產出에 있어서의 消費財占有比率의 減少傾向

國名	年度 및 占有比率				
英國	1871	1901	1924	—	1946
	52	41	40	—	31
프랑스	1861-65	1896	1921	—	1952
	65	44	35	—	34
獨逸	—	1895	1925	1936	1951
	—	45	37	25	23
美國	1880	1900	1927	—	1947
	44	34	32	—	30
벨지움	1846	1896	1926	1936-38	—
	80	49	37	36	—
스위스	1882	1895	1923	—	1945
	62	45	38	—	34
이태리	—	1896	1913	1938	—
	—	72	53	37	—
日本	—	—	1925	—	1950
	—	—	59	—	40
소련	—	1913	1928	1940	1955
	—	67	61	39	29

資料 :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IX, No.3, April 1961.

(註16) Surendra J. Patel, Rates of Industrial Growth in the Last Century, 1860~1958,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IX, No. 3, April 1961, pp. 321~325.

第4表 消費財 및 生産財의 成長率과 兩者間의 比率

國名 및 期間	總產出 (a)	消費財 產出 (b)	生産財 產出 (c)	消費財產出 對 生産財 產出의 比率 c/b
英國				
1812~1851	3.4	3.1	4.0	1.3
1851~1881	2.7	2.0	3.8	1.9
1881~1907	1.8	1.5	2.0	1.3
1907~1935	1.0	0.8	1.2	1.5
프랑스				
1861-65~1896	2.4	1.2	3.3	2.7
1896~1921	0.5	—	1.1	—
獨逸				
1860~1880	2.9	1.8	3.9	2.2
1880~1900	5.0	3.7	5.4	1.5
1900~1913	3.4	2.5	3.7	1.5
美國				
1880~1900	4.5	3.2	5.1	1.6
1900~1927	4.2	3.9	5.5	1.4
이태리				
1896~1913	5.4	3.5	8.7	2.5
소련				
1928~1940	17.0	12.0	21.2	1.8
1940~1955	8.1	6.1	9.1	1.5
1958~1965 (計劃)	8.8	7.3	9.3	1.3

資料 :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IX, No. 3, April 1961.

있으나 遲參하여 發展을 進行하는 國民經濟는 만드시 先進國과 同一軌道上을 進行하지는 않는다. 卽 消費財工業의 確立으로부터 生産財工業의 擴大로 向하는 經路를 取하지 않고 生産財工業이 獨走的으로 發展하는 境遇가 있고, 境遇에 따라서는 生産財工業이 國防産業과 結合하여 消費財工業을 停滯시킨채 不均等한 型으로 發展한다. 特히 後進諸國이 基幹産業의 國有化라는 方法에 依해서 生産財工業을 中心으로 하는 生産力의 急速한 發展을 圖謀하고 있는 事實은 注目할만한 것이며, 이러한 典型的인 境遇로서는 이미 飛躍段階 take-off로 突入했다고 볼 수 있는 印度나 共產中國 같은 例를 들 수 있다.(註17) Gerschenkron도 後進國이 工業化의 過程에서 追求하는 6個命題를 提示하고 그 中에서 後進國이 企業의 大規模性을 強調하고 消費財에 比해서 生産財에 置重하려는 傾向을 指摘하고 있다.(註18)

그런데 以上과 같은 工業構造高度化의 過程에 있어서 勞動力過剩에다 資本不足을 特徵으로하는 後進國에 있어서는 潛在失業과 인플레이션을 防止하기 爲해서 生産力効果의 雇傭效果가 아울러

要請되기 때문에 資本의 有機的構成의 高度化 乃至 資本集約性的 問題에 對해서 새로운 檢討를 必要로 하게 된다. Hicks가, 戰後인플레이션의 危險性을 克服하고 急速히 生活水準을 向上시키기 爲해서는 結實係數 fruition-coefficient(計劃產出/投資)가 높고 結實遲延 fruition lag이 짧은 投資型이 選擇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은(註19) 後進國에 있어서의 短期政策方向의 一面

(註17) W.W. Rostow, op. cit., p. 38.

前掲國譯版, p. 74.

各國의 飛躍期

英國	1783~1802	러시아	1890~1914
프랑스	1830~1860	캐나다	1896~1914
벨기에	1833~1860	아르헨틴	1935~
美國	1843~1860	터키	1937~
獨逸	1850~1873	인도	1952~
스웨덴	1868~1890	中國	1952~
日本	1878~1900		

Rostow 教授는 印度와 共產中國의 飛躍努力이 成功의 이라고 判斷하기에는 아직 時期尙早라는 註를 달고 있다.

(註18) A. Gerschenkron, op. cit., pp. 353~354.

參考로 Gerschenkron의 6個命題에 關한 原文을 그대로 紹介한다.

1. The more backward a country's economy, the more likely was its industrialization to start discontinuously as a sudden great spurt proceeding at a relatively high rate of growth of manufacturing output.¹
¹The "great spurt" is closely related to W.W. Rostow's "take-off."
2. The more backward a country's economy, the more pronounced was the stress in its industrialization on bigness of both plant and enterprise.
3. The more backward a country's economy, the greater was the stress upon producers' goods as against consumers' goods.
4. The more backward a country's economy, the heavier was the pressure upon the levels of consumption of the population.
5. The more backward a country's economy, the greater was the part played by special institutional factors designed to increase supply of capital to the nascent industries and, in addition, to provide them with less decentralized and better informed entrepreneurial guidance; the more backward the country, the more pronounced was the coerciveness and comprehensiveness of those factors.
6. The more backward a country, the less likely was its agriculture to play any active role by offering to the growing industries the advantages of an expanding industrial market based in turn on the rising productivity of agricultural labor.

을 示唆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貯蓄水準이 낮은 後進國에서는 生産回의 結實遲延이 짧고 結實係數가 높으며 資本集約도가 낮은 投資型이 選擇되어야 한다는 原理는 一般的으로 妥當한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一社會全體의 資本集約度選擇의 問題이며 部門別의 資本集約度選擇에 있어서는 個別的인 考慮가 있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 같은 境遇에 있어서는 強力한 體制的 採擇에 依해서 貯蓄과 勤勞의 提高를 圖謀하고 電化와 重工業優先主義를 採擇하므로써 意識的으로 結實係數를 引下시키고 結實遲延을 延長하여 長期的 生産力의 上昇을 期待하고 있다. 다음에 提示한 第5表는 美國과 蘇聯은 現在의 體制와 政策속에서 美國의 低成長率 4%와 蘇聯의 高成長率 8%가 持續되는 境遇를 前提로 하여 兩國의 生産力發展傾向의 比較를 하고 있는 것이며 1982년에 이르러 蘇聯의 生産力이 美國의 生産力을 凌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勿論

第5表 美蘇工業의 發展豫想

年度	소련	美國	年度	소련	美國
1957	100	250	1974	370	487
1958	108	260	1975	400	506
1959	117	270	1976	432	527
1960	126	281	1977	466	548
1961	136	292	1978	503	570
1962	147	304	1979	544	592
1963	159	316	1980	587	616
1964	171	329	1981	634	641
1965	185	342	1982	685	666
1966	199	356	1983	740	639
1967	216	370	1984	799	721
1968	233	385	1985	863	750
1969	252	400	1986	932	780
1970	272	416	1987	1006	811
1971	294	433	1988	1087	843
1972	317	450	1989	1174	877
1973	343	468	1990	1268	912

註: 1957년의 蘇聯의 工業生産量이 美國의 40%이고 蘇聯의 平均成長率 8%, 美國의 平均成長率을 4%로 策定한 境遇의 豫想이다.

資料: 野々村一雄, 「米ソの經濟競争」, 日本と世界の經濟成長, 1960.

(註19) J.R. Hicks, World Recovery after War—A. Theoretical Analysis, *The Economic Journal*, June 1947, p. 160.

經濟政策이란 流動的인 것이고 社會的性向 亦是變化하는 것이기 때문에 一定成長率을 前提로 設定한 것은 問題의 餘地가 있다 할 것이나, 特殊體制와 重化工業의 傾斜的 不均衡發展政策이 招來하는 成長傾向을 示唆하는 것으로서 意義가 있다 할 것이다. (註20)

3. 結 語

—Economics에서 Political Economy로의 復歸

經濟成長의 含蓄內容으로서는 規模, 構造, 主體의 態度等을 包含하는 것이며, 따라서 成長率에 依한 規模擴大過程의 量的인 測定만에 依해서는 產業構造의 近代化 卽 經濟發展의 測定은 不可能한 것이고 또한 後進國의 發展의 問題도 滿足스럽게 說明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經濟發展度의 測定은 產業間 또는 部門間的 生産額 및 就業人口의 構成關係, 工業發展率(註21), 重工業發展率(註22), 工業의 相對的 生産力(註23), 消費類型의 變化等의 導入에 依해서 비로소 測定할 수 있으며 後進國發展의 方向 亦是 여기서 指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經濟成長의 理

(註20) Georgescu-Roegen 教授는 昨年 서울大學校商科大學에서 베 퐁 講演에서 限界分析에 關한 問題點을 說明하고 나아가 蘇聯의 高成長率에 關해서 勞動力을 完全 利用하는데 그 根本原因이 있고 美國의 低成長率은 勞動力의 完全한 利用을 하지 않고 一定時間을 餘暇 leisure에 充當하기 때문이며 必要한 境遇에는 餘暇를 斷念하고 產業的으로 利用하여 成長率을 上昇시킬 수 있다고 指摘한 바 있다.

(註21) 工業部門의 實質生産額을 M , 工業外部門의 實質生産額을 A , 基準時點을 o , 比較時點을 t 로써 表示하면

$$\text{工業發展率} = \frac{Mt}{Mo} / \frac{Mt+At}{Mo+Ao}$$

로써 測定할 수 있다.

論이 經濟成長의 速度 그 自體를 測定한다는 事實로 부터 一步 前進하여 經濟發展의 構造를 解明하는 形態로까지 擴張된 現段階에 있어서는, 從來에 있어 $GC=s$ 로서 單純하게 理解되었던 成長의 問題는 새로운 觀點에서 그 假定부터 根本的으로 反省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여기서 現代經濟學의 課題와 性格도 演繹될 수 있을 것이다. 近代經濟學은, 政治經濟學 political economy 으로 부터 經濟學 economics 으로 呼稱의 變化가 이루어진 事實이 바로 그 性格의 變質을 意味하는 것이며 經濟學의 對象領域의 顯著한 狹小化를 招來하게 된 것이다. 舊古典學派의 理論體系에 있어서는 內生的要因은 與件化하여 外生的要因으로 轉換하여 社會的, 政治的, 技術的 및 制度的 諸要因은 理論體系外로 逐出되었다. 이와 같이 嚴密的 理論을 導出하기 爲해서, 現實的 諸事情으로 부터 遊離된 非現實的 假定위에 構築된 理論은 다시금 現實接近을 不可避하게 되므로써 새로운 政治經濟學에로의 復歸라는 印象을 주고있다. 따라서 成長의 經濟學에 成長의 政治學 그리고 成長의 社會學이 並存되어야 한다는 認識이 提起되는 것이다.

(註22) 重工業部門의 生産額을 H , 輕工業部門의 生産額을 L , 基準時點을 o , 比較時點을 t 로써 表示하면

$$\text{重工業發展率} = \frac{Ht}{Ho} / \frac{Ht+Lt}{Ho+Lo}$$

로써 測定될 수 있다.

(註23)

$$\text{工業의 相對的 發展力} = \frac{\text{工業生産力}}{\text{農業生産力}}$$

筆者 서울大學校商科大學 助教授
서울大學校商科大學 附屬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